

「安民歌」研究

李 緩 衡*

目 次

I. 序 論	1. 해석상의 문제
II. 서사문맥의 이해	2. 노래의 의미 구조
1. 서술원리의 일관성	3. 希願歌로서의 안민가
2. 정치적 위기 인식과 적자 왕위 계승 갈망	IV. 結 論
III. 노래의 의미 분석	參考文獻

I. 序 論

「安民歌」는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에 실려 있다. 「안민가」의 배경설화는 이 조목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조목 밑에 수록되어 전한다. 또한 다른 향가 작품과는 달리 두 편의 노래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병기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곧 두 이야기와 노래가 긴밀한 상관성으로 이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된다. 즉 별도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채 기술된 것이 아니라 경덕왕의 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들은 이 점을 간과하거나 일관성 있는 서사물로 보기보다는 「안민가」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이야기 정도로만 인식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 충남대

그리하여 「안민가」는 정치적 갈등 분출을 무마하려는 차원에서, 불교사상의 구현을 위한 승화된 의식요라는 차원에서 또는 유가적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요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유사』는 편찬자인 일연이 기술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한 조목 밑에 주제별로 집약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 조목 밑에 별개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예는 극히 드물다. 이 점은 하나의 조목명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야기 상호간의 유기적 상관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향가 역시 이들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점을 중시,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 전체를 하나의 서사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안민가」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II. 서사문맥의 이해

1. 서술원리의 일관성

『삼국유사』체재를 보면 각각의 조목명은 그 조목 속에 포함된 이야기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의 조목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서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음도 사실이다.¹⁾ 그러한 면에서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도 예외는 아니다. 즉 경덕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충담사, 표훈대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뜻보면 위의 조목은 ① 경덕왕과 충담사의 이야기와 ② 경덕왕과 표훈대덕의 이야기로 대별되어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①은 ‘편안히 다스리기’의 의미로, 그리고 ②는 ‘적자 왕위내리기의

1) 이에 대해서는 줄고 ‘處容歌 研究’(『論文集』第13輯, 忠南大 大學院, 1993)와 ‘水路夫人’條 歌謠研究(『韓國言語文學』第32輯, 韓國言語文學會, 1994)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과육'을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하나의 조목에 별도의 이야기를 삽입·수록하지 않았음은 그의 서술원리면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다. 특히 「기이」편의 이야기들은 모두 왕과의 관련담 내지 신이담으로 짜여져 있다. 그렇다면 <경덕왕 총담사 표훈대덕>조의 두 이야기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를 살펴 보기 위해 먼저 <경덕왕 총담사 표훈대덕>조의 서사문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도덕경을 대왕이 예를 갖추어 받았다.
- ② 왕이 나라를 다스린지 24년에 五岳三山の 神들이 때때로 궁전의 정원에 나타나 모시었다. 3월 3일 왕이 歸正門의 樓에 올라 좌우 신하들에게 말했다. “누가 도중에서 영복송 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겠소?” 이때 마침 모습이 깨끗한 고승이 이리 저리 거닐면서 지나갔다. 좌우의 신하가 보고서 그를 데리고 와 보니 왕은 “내가 말하는 영승이 아니다.” 하고 그를 물리쳤다. 다시 승려 한 사람이 장삼을 입고 앵통을 걸머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왕이 보고 기뻐하면서 그를 보더니 누 위로 맞아 들였다. 그 앵통 속을 보니 차구만 담겨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누구요?” “제가 총담입니다.” “어디서 오오?” “저는 매양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다려서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께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왕이 “나에게도 또한 차 한 잔 주겠소?” 하니 증은 이에 차를 다려서 왕에게 드렸는데 차의 맛이 이상하고 그 찻잔 안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기었다. 왕은 말했다. “내 들으니 스님이 기과량을 찬양한 사뇌가가 그 뜻이 매우 높다하니 과연 그러하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백성을 다스려 편안히 할 노래를 지어 주오.” 증은 즉시 칙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었다. 왕은 그를 아름답게 여겨 왕사로 봉하였으나 증은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노래 생략>……
- ③ 왕은 음경의 길이가 여덟치나 되었다.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비를 폐하여 사량부인으로 봉했다. 후비 만월부인의 시호는 경수태후며, 의총 각간의 딸이었다. 왕이 하루는 표훈대덕에게 명했다. “내가 복이 없어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 원컨대 대덕은 상제께 청하여 아들을 두게 하여 주오” 표훈이 천제에게 올라가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상제께서 딸은 얻을 수 있지만 아들은 얻을 수 없다 하십니다.” “딸을 바꿔 아들을 만들어 주기 바라오” 표훈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청하니 상제는 말했다. “될 수는 있지만 아들이 되면 나라가 위태할 것이다.” 표훈이 내려오려 할 때 상제는 다시 불러 말했다. “하늘과 사람 사이는 문란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대사가 이웃 마을처럼 왕래하여 천기를 누설했으니 이 후로는 다시 다니지 말아야 한다.” 표훈이 돌아와서 천제의 말로써 왕을 깨우쳤으나 왕은 말했다. “나라는 위태하더라도 아들을 얻어

뒤를 잇게 한다면 만족하겠소.” 그 후 만월왕후가 태자를 낳으니 왕은 매우 기뻐하였다. 태자는 8세 때에 왕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왕위에 올랐다. 이가 혜공대왕이다. 왕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태후가 대신 정사를 보살피니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았다.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미처 막아 낼 수 없었다. 표훈의 말이 그대로 맞았었다. 왕은 여자가 남자로 되었으므로 돌날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항상 부녀가 하는 짓만 했다. 비단 주머니 차기를 좋아하고 도사들과 함께 회롱했다. 그러므로 나라에 큰 난리가 생겨 마침내 선덕왕과 김양상에게 죽음을 당했다. 표훈 이후에는 신라에 성인이 나지 않았다 한다.²⁾

①(당으로부터 도덕경 受之)은 서사문맥상 연관성이 모호하다는 점과 효성왕대에 중국으로부터 도덕경이 들어왔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경덕왕조와 무관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기실 ①은 이 조목의 내용과 별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 말미에 혜공왕이 道士들과 함께 회롱했다는 기록은 간과할 수 없다. 도사는 도교상의 용어이다. 또 표훈대덕이 하늘로 올라가 상제를 배알하는 점도 도교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연의 기술태도를 무시한 채, 이를 <효성왕>조 말미의 이야기를 오기 내지 오전한 것 정도로 보려는 견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³⁾ 그렇다면 ②(안민가 배경설화)와 ③(득자설화)의 관련 양상을 파악하는 일이 남는다. 먼저 ②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②는 몇 가지 사건 모티프로 분해할 수 있다. 첫째,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의 諸神의 出現 사건. 둘째, ‘三月三日 王之 歸正門樓上’ 行御 사건. 셋째, ‘榮服僧’ 引見 사건 등이 그것이다. 五岳三山神의 출현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處容郎 望海寺>條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은 ‘불길한 징후’에 대한 예언적 행태로서의 해석이다.⁴⁾ 다른 하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

2)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

3) 이 점을 문제시 할 경우 <孝成王>條에서 기록하고 있는 연대가 성덕왕대에 해당하므로 이것부터 수정해야 한다.

4) 朴魯埜,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최 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새문社, 1983.

金承燦, 『韓國上古文學論』, 새문社, 1987.

이도훈, 『안민가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화엄사상』, 『畿田語文學』 第3輯, 水原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88.

악삼산은 신라 왕권의 상징으로서 전제 왕권을 수호해 주는 진원지이므로 이들 신의 출현은 凶兆의 조짐이 아니라는 것이다.⁵⁾ 그런데 우리가 이 조목에서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민가가 불리게 된 원인'과 '경덕왕의 무리한 득남 요구와 그로 인한 혜공왕의 피살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주지하다시피 「안민가」는 경덕왕이 '백성 편안히 다스리기 노래'를 요청함으로써 창작되었다. 국왕의 선정에 의해 태평성세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와 같은 「안민가」를 요구하고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또 그러한 성세(경덕왕 치리기간)와 왕의 실정(혜공왕의 치리기간)을 하나의 조목에 병기할 뚜렷한 이유가 있었을까? 경덕왕 치리기간 중에 있었던 태평성세만을 일연이 기술하고자 했다면 혜공왕의 출생과 성장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정국의 혼란, 혜공왕의 시해 등은 다음 조목인 <혜공왕>조에 수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연은 <경덕왕 총담사 표훈대덕>조 말미에 분명히 '終爲宣德與金良相所弑'⁶⁾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써 볼 때, 오악삼산신의 출현은 무열왕계 전제왕권 붕괴를⁷⁾ 계시하기 위한 신들의 現身으로 보아야 하겠다. 이 점은 『三國遺事』卷五「感通」第七 <月明師 兜率歌>條의 서사문맥과도 통한다. 경덕왕 19년에 있었던 '二日並現'은 곧 이러한 조짐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경덕왕대는 신라문화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는 경덕왕의 치적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되는 정치적 혼란은 그칠 줄을 몰랐다. 이는 憲康王代의 정치상황과 유사하다. 즉 太平盛世의 시대상황이 國亡으로 이어졌으므로 이율배반적인 면에서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佛事에의 경도와 왕권강화에서 비롯된 이러한 정치적 위기의식을 경덕왕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現侍한 것이 바로 五岳三山神이다. 그러한 조짐을 경덕왕이 일차 인식하였으므로 忠談師와 같은 緣僧을 만나 정치적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백성 편안히 다스리기' 노래를 구하였던 것이

5)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2.

6) 『三國史記』 <宣德王>條와 『三國遺事』 <元聖大王>條를 살펴 볼 때 金良相은 金敬僧의 誤記인 듯하다

7) 金承燦, 위의 책, p. 218.

8)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 研究』, 一潮閣, 1974, p. 216.

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더우기 천의를 거스른 왕자의 탄생으로 인하여 다시 '二日並現'의 조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덕왕은 충담사와 같은 연승을 다시 만나 정치적 혼란상을 막아 보고자 한 일련의 조치 중의 하나가 바로 靑陽樓에서 월명사를 만난 일이다. 그렇다면 「안민가」와 「도술가」의 창작시기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王十九年'과 '王御國二十四年'이란 기록이 있으므로 해서이다. 그러나 '王御國'과 '即位'로 각각 통치의 기한을 표시하고 있는⁹⁾ 일련의 기술태도로 본다면 이 조목의 '王御國二十四年'은 '王二十四年'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던二十四年 중의 어느 한 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조짐의 심각성('五岳三山神의 現身' → '二日並現')이나 역사적 시간성('오악삼산신의 현신(王御國二十四年 어느 해의 三月三日)' → '혜공왕 탄생(王十七年 七月二十三日)' → '이일병현(王十九年 四月一日)') 그리고 노래 창작의 시효성(경덕왕이 이미 향가의 甚高함을 알았으므로 월명사에게 '雖用鄉歌可也'라고 하였을 것이다)으로 보아도 이와 같은 순차적 징후로 봄이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

향가의 작자로 알려진 融天師, 月明師, 忠談師 등은 정통 승려와는 다른 낭도승으로 알려졌다.¹⁰⁾ 선사나 대덕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은 향가는 괴변이나 괴사 등을 퇴치시키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이는 곧 향가가 '能感動天地鬼神'함과 통하는 말이다. 경덕왕은 다른 어느 왕보다도 향가와 인연이 많은 군주이다. 『삼국유사』 소개 14수 향가 중 5수(월명사의 도술가와 재망매가,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와 안민가, 회명의 도천수대비가)가 이 왕과 관련된다. 또한 신이한 행적을 보인 승려나 영험한 절에 대해서는 創寺와 施田 그리고 財幣의 獻納을¹¹⁾ 아끼지 않았던 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덕왕은 향가와 이들 승려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고 본다. 그리하

9) 尹榮玉(앞의 논문, p. 218)과 曹平煥(『讚者婆娑歌·安民歌 小考』, 『北泉沈汝澤先生華甲記念論叢』, 1982, pp. 15-17)의 논문 참조.

10)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史學報』 6, 1954, pp. 37-49. 金煥泰, 「僧侶郎徒 -花郎徒와 佛教와의 關係-」, 『佛教學報』 7, 1970, pp. 262-268. 등 참조.

11) 『三國遺事』 卷三, 「塔像」 第四,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敏藏寺>,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相相朴朴>條와 같은 책 卷四, 「義解」 第五, <眞表傳簡>條 등 참조.

여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을 이번에는 歸正門樓上에서 연승을 만나 풀어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3월 3일 또한 액을 막는 날로 지켜져 온 사실을¹²⁾ 감안할 때,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경덕왕은 손없는 날을 택하여 연승을 영접하고 그를 통해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구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경덕왕대에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경덕왕 월명사 충담사 표훈대덕>조라는 하나의 항목에 넣지 않고 월명사의 도술가는 「감통」편에, 충담사의 「안민가」는 「기이」 제2에 수록한 것인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문은 「기이」 제2보다 「감통」편을 보면 보다 쉽게 풀린다. 「감통」편에 편제되어 있는 열 가지 이야기는 모두 불교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金現感虎>條만 보더라도 '대개 대성이 사물에 감응함이 다방면이었으므로 능히 김현공이 탐돌이에 정성을 다한데 감응하여 그윽한 이익을 갚으려 했을 뿐이니 당시에 복을 받음은 당연하지 않겠느냐'¹³⁾라고 일연은 부기하고 있다. 「기이」 제2의 이야기들에서는 이와 같이 일연이 직접 개입하여 부처의 감응을 설명한 대목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는 입증된다. 동일 왕에 대한 기사를 조목에 따라 분리 기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에 대한 예증이라 할 수 있다. 즉 경덕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에 따라 異蹟이나 靈異의인 사건은 「기이」편에, 佛事に 관련된 것은 「塔像」편에, 부처의 영험을 나타낸 것은 「感通」편에, 孝는 「孝善」편에, 出世나 得道는 「避隱」편에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榮服僧' 引見 사건이다. 이 사건은 王과 臣下간의 齟齬,¹⁴⁾ 신하의 의중 탐색 시험¹⁵⁾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이에 앞서 우리는 '師'와 '大德'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명에서도 '師'와 '大德'을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師'와 '大德'은 신분상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三國遺事』卷二「紀異」第二 <四十八代 景文王>條를 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보인다. 경문왕이 아직 國仙의 낭도로 있을 때, 範教師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자 이를 고맙게 여긴 왕

12) 최 철, 앞의 책, p. 189.

13) 『三國遺事』卷五「感通」第七, <金現感虎>條

14) 尹榮玉, 앞의 책, p. 222.

15) 楊熙喆, 「安民歌와 關聯說話의 텍스트 言語」, 『西江語文』, 第5輯, 1986.

이 범교사에게 大德의 벼슬을 내린 기록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보듯 '郎之徒上首'를 '師'로써 호칭하고 있는 점은 이들이 곧 國仙의 무리임을 밝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범교사에게 '爵爲大德'한 것은 계층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이밖에도 종파의 차이까지 드러낸다. 문맥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담사는 미륵사상을 신앙하고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매양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다려서 남산 삼화령의 彌勒世存께 드립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분명해진다. 同王代의 월명사도 미륵보살의 영험을 받아서 일괴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이에 대한 실증인 셈이다(왕이 준 차와 염주가 남벽의 벽화 미륵상 옆에 있었다는 것이 그 예임). 이에 비해 表訓大德은 화엄사상 계통의 정통 승려임에 틀림없다. 표훈은 화엄사상의 집성자인 의상의 弟子十大德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덕왕이 威儀鮮潔한 大德을 물리치고(王曰 非吾所謂榮僧也) 충담사를 영접하였다는 사실은 권력 상층부에 있으면서 왕권 견제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권위승을 마다하고¹⁶⁾ 비록 변방에 있지만 국선의 상수로서 주술적 능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던 낭도승을 맞이하여 난국 해결의 大方을 강구한 것으로 보아진다. 威儀鮮潔한 大德을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외양이 초라해 보이는 승려를 기쁘게 맞이하였다는 기록은 이와 같은 추론을 가능케 한다(被衲衣負櫻筒從南而來王喜之邀致樓上). 그렇다면 이는 미륵사상의 효험을 빌어 난국을 타개해 보려는 경덕왕의 적극적인 의지의 일단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신라의 정신적 지주는 화엄사상이었으며, 경덕왕 또한 불국사와 석굴암을 조영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¹⁷⁾ 전제 왕권을 강화 유지하기 위해 화엄사상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체의 이변과 흉년, 정치적 불안¹⁸⁾ 등이 끊이지 않음으로 호국신앙인 미륵사상 쪽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②(안민가 배경설화)는 경덕왕의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혼란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의 발로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16)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p. 262 참조

17) 『三國遺事』 卷五, 「孝善」 第九, <大城孝二世父母>條 참조.

18) 『三國史記』 卷九, 「新羅本紀」 第九, <景德王>條 참조.

와 같은 정치상황이 「안민가」의 가창에도 불구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③(득자설화)이다. ③만으로도 독립설화로서의 효용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무리한 득남 요구가 결국 자멸을 자초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②(안민가 배경설화)와 관련지어 살필 때, ③(득자설화)의 진의는 더욱 분명하게 부각될 수 있다. 경덕왕의 전제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은 「안민가」와 「도술가」를 가창케 한 것만이 아니다.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직속계열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집요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무리한 요구로 말미암아 천리를 역행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직계 왕권이 무너지고 마는 파탄을 자초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는 ①(도덕경 수지) ②(안민가 배경설화) ③(득자설화)이 내용상 긴밀성을 유지하면서 시간적 순차에 따라 기술된 하나의 완벽한 서사물이라는 것이다.

2. 정치적 위기 인식과 적자 왕위 계승의 갈망

경덕왕은 신라 中代에서 下代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집권한 군주이다. 경덕왕 치리기간 중 변괴, 흉년, 기근, 역질 등의 천재와 잦은 관직의 경질, 제도의 혁신 등 급격한 정치개혁, 그리고 무리한 토목공사 및 대형종의 주조 등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백성과 관료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왕당파와 반왕당파로 분리되는 극한 상황까지 치달게 된다. 이는 잦은 모반으로 이어지게 되고 급기야 혜공왕이 반왕당파인 김양상에게 피살됨으로써 太宗武烈王의 직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만다.

직계 적자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경덕왕의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官府部署를 개혁하고, 國學에 博士와 助教를 두었으며, 州·郡·縣制의 명칭을 漢式으로 고치고, 官府職制名을 개칭하는 등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왕권의 적통성을 잃지 않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덕왕 칭송비를 세우고,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하는 한편 불국사와 석굴암을 조영하고 궁궐을 중수하였으며, 황룡사중, 분황사동상 등을 주조하고 장육존상을 개조하는 등 왕위를 선양하고 불심을 고

양하려는 의지의 문화사업도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 역사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므로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고향을 찌는 악재로 작용되었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제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버팀목은 역시 직계 혈통의 왕세자를 생산하는 일이다. 전제왕권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지킬 적자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경덕왕 또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위기 의식을 느낄 때마다 직계혈통의 적자로 왕위 계승을 실현하려는 경덕왕의 염원은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王妃를 폐하면서까지 적자생산을 갈망하게 된다. '나라는 비록 위태하더라도 아들을 얻어 뒤를 잇게 한다면 만족하겠소(國雖殆 得男而爲嗣足矣)' 한 대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술자인 일언이 '왕은 玉莖이 여덟치나 되었다(王玉莖長八)'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경덕왕이 왕자를 생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조목의 설화가 무열왕계의 왕위 단절 설화임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덕왕은 표훈으로 하여금 上帝를 배알하고 득자를 청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미 민심과 천의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힘들게 얻은 왕자가 피살되는 사건에 휩싸이고 만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삼국유사』의 편목을 무시하고 경덕왕과의 관련 사실을 도시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王二十四年 中の 어느 해	王十七年 七月 二十三日(758)
忠談師 安民歌 創作 說話	表訓大德 轉女成男 說話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	
「紀異」第二	

王十九年 四月 一日(760)	惠恭王 十六年 四月(780)
月明師 兜率歌 創作 說話	惠恭王 弑害 說話
<月明師 兜率歌>條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	
「感通」第七	「紀異」第二

무열왕계를 고수하려는 경덕왕의 강력한 전제왕권 강화와 천의에 역행하

19)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기록을 종합하여 재구해 본 것임.

는 왕세자 요구는 왕위 단절이라는 극한 상황에 빠지고 만다. 호국신인 오악삼산의 신들이 장차 일어날 이러한 國殆의 예조를 계시하였음에도 경덕왕은 국가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왕위계승을 위한 왕세자 생산에만 관심을 나타낸다. 천의를 거스르면서 얻은 왕세자는 탄생하는 날부터 불길한 징조를 보인다. 천둥 번개와 함께 낙뢰가 佛寺 16개소에 있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²⁰⁾ 그러한 조짐은 계속되어 귀족의 대반란으로 장차 왕권이 붕괴되리라는 ‘二日並現’의 징후까지 나타나게 된다. 일피는 즉멸되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천의에 역행하였으므로 잦은 모반이 계속되다가 끝내 혜공왕이 시해되고 이로 인해 태종무열왕계 왕위는 단절되고 만다. 이와 같은 징벌은 왕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미쳐 표훈대덕 이후로는 신라에 성인이 태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表訓後聖人不生於新羅).

경덕왕대가 문화의 절정기였음에도 결국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이 바로 무리한 득남 요구에 있었다는 점을 일연은 이 조목 말미에 ‘표훈의 말이 그대로 맞았다(訓師之說驗矣)’라고 함축적으로 표징하고 있으며, 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혜공왕>조 말미에 ‘표훈의 말에 나라가 위태롭다 한 것이 이것이었다(表訓之言國殆是也)’라고 적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거로서 ‘安國兵法’까지 들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²¹⁾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 설화는 <월명사 도술가>조와 관련되어 (무열왕계 적통을 고수하기 위한 경덕왕의 강력한 왕권강화 → 반왕당파의 대두와 민심의 유리로 국가 혼란) → 무열왕계 전제왕권 붕괴를 계시하기 위한 오악삼산신의 현신 → 충담사의 안민가 창작 → 경덕왕의 무리한 요구와 왕세자 탄생(<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 → 귀족의 대반란을 계시하기 위한 二日並現의 현시 → 월명사의 도술가 가창으로 일피즉멸(<월명사 도술가>조) → 천의를 거슬러 혜공왕 피살 → 무열왕계 직계혈통의 단절(<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로 사건이 전개되는 질서 정연한 하나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차례 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20) 『三國史記』卷九, 「新羅本紀」第九, <景德王>條 참조.

21) 『三國遺事』卷二, 「紀異」第二, <惠恭王>條 참조.

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거기다가 친의를 거스르면서까지 득남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자멸해 버리고 말았다는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려는 의도로 기술된 이야기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Ⅲ. 노래의 의미 분석

1. 해석상의 문제

「안민가」는 ‘知古如’, ‘窮理叱大盼生以支所香物生’만을 제외하고는 해독상의 이견이 다소 있을 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위의 서사문맥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안민가」에 대한 이해는 이 두 구를 해독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理安民과 安民이라는 의미와 君(臣)과 民이라는 입장이 대립된다는 점에서 노래의 창작목적은 달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3구와 4구 사이의 ‘爲賜尸知’와 제7구와 8구 사이의 ‘爲尸知’를 김완진을 제외한 제 학자가 3구와 7구 뒤에 붙인 것이라든지 제9구의 ‘後句’의 위치와 이것을 ‘아아’, ‘아으’ 또는 그냥 ‘後句’로 해독한 점이라든지 하는 몇 가지 이견이 있으나 가의를 파악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① ‘知古如’

‘知古如’에 대한 제 학자의 해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㉒ 소창진평 ²²⁾ : 民이 得숨을 알고다 | 나라해 디너 필고다 |
| ㉓ 유 장 선 ²³⁾ : 民을 得숨고다 | 나라디닐우다 |
| ㉔ 양 주 동 ²⁴⁾ : 民이 得숨 알고다 |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
| ㉕ 지 현 영 ²⁵⁾ : 民이 得숨 알고다 | 나라웃 디니사알고다 |
| ㉖ 이 탁 ²⁶⁾ : 民사뎨아디고다 | 得숨 불이 견디어 디고다 |

22) 小倉進平, 『鄉歌 및 吏讀의 研究』, 東京, 近澤商店印刷部, 1929.

23) 劉昌宣, 『安民歌』, 『新東亞』 55호, 新東亞社, 1936.

24) 梁柱東, 『古歌研究』, 博文書館, 1943.

25) 池憲英, 『鄉歌麗謠新釋』, 正音社, 1947.

㉑ 흥기문 ²⁷⁾ : 민이 두수리 알고다	나라아디 디니디 알고다
㉒ 김준영 ²⁸⁾ : 민이 두술디고다	나라있 디닛 디고다
㉓ 정렬모 ²⁹⁾ : 아루미 두올디고두	나라악 가지로 마디고두
㉔ 김선기 ³⁰⁾ : 알간이 다살 알고다	나라 굳이 디니디 알고다
㉕ 서재극 ³¹⁾ : 민이 두술디고다	나라히 디니히디고다
㉖ 김완진 ³²⁾ : 민이 두술 알고다	나라 디니기 알고다
㉗ 서영석 ³³⁾ : 민이 두술디고다	나라악 디니디 디고다
㉘ 정창일 ³⁴⁾ : 알 민이 필히 알고여	나라더 디니러 알고여

위에서 보면 '知古如'는 ㉑, ㉓, ㉘과 같은 독특한 해석을 제외하면 '알고다'와 '디고다'의 의미로 압축된다. '디고다'로 해독할 경우 '민이 두술디고다'는 '백성이 사랑할 것이도다'가 되고 '나라히 디니히디고다'는 '나라가 지너질 것이도다'로 풀이되어 왕이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사랑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治安民(理安民)의 의미와 왕이 어떻게 하면 백성의 사랑을 받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治民而受愛守國의 의미로 그 성격이 기우게 된다.³⁵⁾ 그러나 '알고다'로 해독할 경우는 이와 반대의 의미가 되어 백성이 왕과 신하가 선정함으로써 받게 될 사랑을 알게 된다는 의미와 이 땅을 백성이 살기에 편안한 나라로 다스리면 나라가 지켜질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서사문학에서 드러나는 理安民歌와 安民歌에 대한 기록상의 구분은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³⁶⁾ 그러나 이에 앞서서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노래 요구에서 보여지는 경덕왕의 태도이다. 왕의 입장에서 '백성

26) 李 鐸, 『鄉歌新解讀』, 『한글』 114호, 한글학회, 1956.

27) 흥기문, 『향가해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1956.

28) 金俊榮, 『鄉歌文學』, 螢雪出版社, 1964.

29) 鄭烈模, 『향가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5.

30) 金善琪, 「안민가」, 『現代文學』 148호, 1967.

31) 徐在克, 「新羅 鄉歌의 語彙 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75.

32)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33) 徐暎錫, 「新羅鄉歌의 難解語 研究 -安民歌 語釋을 中心으로-」, 『新羅文化』 第二輯,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85.

34) 鄭昌一, 『鄉歌新研究』, 세종출판사, 1987.

35) 楊熙喆, 앞의 논문, p. 97.

36) 楊熙喆은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歌呈之 王佳之 封王師 僧再固辭不受'를 왕의 理安民歌 요구에 忠談이 安民歌를 노래했다고 파악, 이러한 이치로 볼 때 '知古如'는 '알고다'로 해독함이 옳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pp. 98-99)

잘 다스리기'를 나타내는 理民이나 '정치 잘 하기'를 표시하는 善政의 의미는 문맥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경덕왕이 요구한 것은 '백성 편안히 다스리기'의 노래이다. 그러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백성 즉 民本思想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성이 사랑할 것이로다'로 읽을 경우 그 앞 구와의 관계가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노래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이 혼란하므로 이를 타개해 보려는 경덕왕의 의지에 의해서 지어진 가요이다. 그러므로 그 근본은 백성에 두어야 한다. 君臣民이 서로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할 때, 나라가 태평하고 그 중에서도 君과 臣이 정직한 통치를 해야만 民이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君이 父로 臣이 母로 民이 兒로 비유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암시나 지적이 없이 '백성이 사랑할 것이다'의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君은 아비요 臣은 사랑하실 어미요 民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몽매한 백성일지라도 제 부모 섬기듯 그 사랑을 알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知古如'는 '알고다'로 해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이 구절이 「안민가」 해독 중에서 가장 난해하여 이견이 많은 부분이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제 학자의 해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소창진평 : 굴스땀 생으로 필바인 物生
- ㉡ 유 창 선 : 구물대는 살은 物生
- ㉢ 양 주 동 : 구물스다히 살 손 物生
- ㉣ 지 현 영 : 구술느 잇실듯느
- ㉤ 이 탁 : 갈릴 다홀내아견느을 못올내아
- ㉥ 흥 기 문 : 구릿 대홀 나히 고이숨 갖나히
- ㉦ 김 준 영 : 구무릿딕홀 사닛 손 物生
- ㉧ 정 렬 모 : 구물스대홀 사로기스리
- ㉨ 김 선 기 : 구릴 깔 깔 나리시숨 물생
- ㉩ 서 재 극 : 구릿대홀 내히숨 물생
- ㉪ 김 완 진 : 구릿 하늘 살이기 바라므찌
- ㉫ 서 영 석 : 구릿 클 살손 物生
- ㉬ 정 창 일 : 窟理설 혼홀 생이러 바름 物生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物生'을 제외하고는 일치되는 해독이 거의 없다.

그러하므로 본고에서는 해독상의 문제보다도 해석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안민가' 전체의 의미맥락과 어울리는 해석을 찾아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窟理叱大盼'은 '樞機', '구물거리며', '神國', '똥자루 큰 것', '嘆息(또는 詛呪)을', '大衆을', '굶주린 배' 등으로 그 해독이 분분하다. 그런데 해독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래의 전체 가의에 어그러지는 해독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 '樞機'나 '神國'은 전체 내용이나 다음에 오는 7, 8구와 어울리지 않는다. 또 군왕 앞에 지어 바친 노래에 '糞尿'語가 이렇게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³⁷⁾ '大衆을'로의 해독은 타당성이 있는 듯하나 物生을 '돌치'로 읽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런 점에 있어서 '嘆息(또는 詛呪)을', '굶주린 배' 등으로 읽는 것도 7, 8구와 문맥이 자연스럽게 못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窟理叱大盼'의 해독으로 '구물거리며'(구차히 사는, 하찮은, 생명을 이어가는, 먹고 사는)³⁸⁾(양주동, 김준영, 서재극)를 취하기로 한다. 이것이 당시 백성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용어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노래의 의미 구조

경덕왕은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직과 제도를 개혁하고 박사와 조교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문화사업도 활발히 추진한 군주였다. 그러나 신라 중대 말기의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은 이미 왕권을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흉년과 천재지변은 경덕왕의 이러한 정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五岳三山神의 現身', '二日並現' 등과 '彗星의 잦은 출현', '虹貫日', '鬼鼓聲' 등은 이에 대한 예증인 셈이다. 史記에서조차 '望德寺의 塔動'을 安祿山の 난에 대한 감응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은³⁹⁾ 그와 같은 심증을 더욱 굳혀 준다 하겠다.

경덕왕은 점차 가중되는 정치 사회 경제적 압박을 해소하고 진골계층의

37) 金完鐵, 앞의 책, p. 74.

38) 金俊榮, 앞의 책, pp. 104-105.

39) 『三國史記』卷九, 「新羅本紀」第九, <景德王>條 참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강력한 효험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이라도 찾아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조영하고 황룡사 신중을 주조하는 등은 그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의도로 보아진다.⁴⁰⁾ 즉 피폐한 민심을 안위하고 귀족의 세력을 억압하여 강력한 중앙 집권적 질서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덕왕의 이상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덕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그리하여 경덕왕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아울러 安民의 理法까지도 구하려는 의도에서 緣僧을 찾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안민가」는 불려진 것이다.

「안민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경덕왕과 총담사의 관련설화에 서만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경덕왕 총담사 표훈대덕>조 전체를 조명하지 못하고 경덕왕과 총담사, 경덕왕과 표훈대덕의 두 이야기로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조목 설화는 오히려 「감통」편에 수록되어 있는 <월명사 도술가>조와 연관된다. 「안민가」와 그 배경설화는 비록 그 바탕에 미륵사상과 화엄사상을 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표면 주제는 순리에 역행하면 멸망하거나 致死한다는 중엄한 교훈이 담긴 노래와 이야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월명사의 <도술가>조는 「감통」편에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총담사의 「안민가」는 기이편에 수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는 입증된다. 그것은 곧 부처의 감응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는가 하는 물음에서 분리된다. 월명사의 「도술가」는 월명의 노래만이 아니라 미륵화신의 원조가 있었음을 문맥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총담사의 「안민가」는 이러한 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월명사의 「도술가」는 「二日並現」의 괴사가 도술가를 가창한 후에 즉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총담사의 「안민가」에서는 그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다만 표훈대덕과의 관련담이 이어질 뿐이다. 이로서 볼 때, 일연의 『삼국유사』 편목 설정은 분명한 기준에 의한 분리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민가」와 <경덕왕 총담사 표훈대덕>조는 하나의 서사구조로 짜여진 순차적인 이야기와 노래임을 알아야 한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안민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⁴¹⁾

40) 이에 대한 예증은 『三國史記』 「景德王」조에 여러번 등장한다.

41) 여기에 예시한 「안민가」 해석은 필자가 종합한 것이다. 5행을 제외한 기본 해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毋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 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함을 알리라	제1연
窺理叱大勝生以支所音物生 此盼喰惡支治良羅 此地盼捨遺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國惡支持以支知古如	구물거리며 사는 백성(정성으로) 먹여 살리고 (백성들에게 이 땅의 주인은 백성들이니)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갈 데가 없다는 마음이 들도록) 한다면 나라가 지켜짐을 알리라	제2연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아아 (임금은)임금답게 (신하는)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기 신분에 충실)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제3연

「안민가」는 위와 같이 세 개의 의미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4행은 君臣民의 계급적인 관계를 가정적이고 혈연적인 父母兒의 관계에 비유한 것이다. 직분적 계층적 수직관계를 천륜의 애정관계로 표현함으로써 백성이 부모의 사랑을 알 듯 君臣의 사랑함을 알므로 나라는 지켜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비단 유교의 정치이념 뿐만 아니라 불교 등에서도 동일시하는 규범이다. 그러므로 제1~4행은 이상적인 가정관 나아가 국가관인 셈이다. 제5~8행은 '구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아야 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므로 이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정치적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제9~10행은 임금은 임금의 직분을, 신하는 신하의 직분을, 백성은 백성의 직분을 다할 때, 나라는 태평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나라는 스스로 태평성세가 됨을 지적한 말이다. 제1연의 '이상적인 백성 다스리기'(1~4행)이념과 제2연의 '현실적인 백성 다스리기'(5~8행)상황이 합축된 결집구가 이에 해당된다(제3연). 즉 이상적인 安民과 현실적 安民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君臣民 어느 한 편만이 노력해서는 안되고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나

석의 골격은 김완진의 해독이 필자가 추구하는 논의와 같으므로 이에 따랐음을 밝혀 둔다.

라는 저절로 태평하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2. 希願歌로서의 안민가

「안민가」는 ‘백성 편안히 다스리기’ 노래이다. 그러므로 태평성세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 노래이다. 앞에서 살펴온 결과는 이 점을 거듭 중시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 그렇다면 「안민가」가 불렸다는 사실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고 있다 하겠다. 경덕왕 당시의 사회적 혼란은 이러한 「안민가」를 필요로 할만큼 가중되어 갔다. 왕이 그러한 사회의 혼란을 인식하지 못할까봐 ‘五岳三山神’이 現身하여 계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안민가」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덕왕의 ‘백성 편안히 다스리기’ 염원을 담아 부른 노래임이 분명하다.

「안민가」가 주술적인 기능이나 임금을 悔悟하기 위한 勸告나 忠諫의 의미로 창작되었다면 이 노래가 지어진 이후의 상황을 보여 주었을 것이다. ‘日怪’을 卽滅시킨 월명사의 「도술가」나 ‘屋怪’를 卽滅시킨 용천사의 「혜성가」처럼 영험함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민가」를 지은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경덕왕이 「안민가」를 아름답게 여겨 총답사를 왕사로 봉하였다는 기록이 나올 뿐이다. 이점은 노래의 내용이 순간적 효험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한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민가」에 제시된 대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안민가」는 治國理民의 노래인가. 爲民施仁의 노래인가. 전자는 통치이념의 제시라는 견지에서 왕의 입장을 대변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민본주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君 : 臣民의 이분법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君臣 : 民의 위계질서를 느끼게 된다. 이럴 경우 우리는 다시 문면으로 돌아가서 그 문면에 직면하는 태도를 취해볼 필요가 있다. ‘爲朕作理安民歌’의 구절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차적인 의미는 ‘治安民’의 理法이다. 경덕왕대의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덕왕의 무리한 전제왕권 강화와

토목, 신종주조 등의 대형 역사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하면 ‘治安民’의 理法만을 강구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양면성에 빠지게 된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안민가」에도 그와 같은 ‘治安民’의 大方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극히 일반적인 정치 이상만이 노래말에 보일 뿐이다. 이로써 볼 때, 「안민가」는 治民的 요소보다는 爲民的 요소가 많이 내재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승려라는 신분적 위치로 보거나 왕의 요구에 즉각 노래를 지어 바쳤다는 상황으로 보아 불교사상의 구현 내지 충담의 정치적 관심으로 「안민가」 창작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안민가」의 노래말이 불교적 성향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과 王師를 固辭不受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가 제기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민가」는 세 개의 의미단락으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정치적 이상과 현실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조화를 유도하는 의미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君 → 臣 → 民의 수직적 계층적 위계질서에 의한 지배체제가 아니라 君 ↔ 臣 ↔ 民 ↔ 君의 수평적 가정적 혈연관계에 의한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한 것이 「안민가」가 지향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는 실질적인 治國理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안민가」는 希願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의 안위는 어느 한 계층만의 관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君臣民 모두가 가정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각자의 직분을 다할 때 그것은 지켜진다. 누구나 알고 있음직한 이러한 생각을 충담은 노래에 담은 것이다. 그것도 治安民이 아닌 爲民的 사고에서 출발한다. 다 알고 있음직한 이러한 安民의 이상이 실현되어야 국가의 안위는 저절로 지켜진다는 강한 염원이 담긴 노래가 바로 「안민가」인 것이다.

IV. 結 論

본고는 지금까지 일연의 『삼국유사』 서술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를 하나의 일관된 서사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하여 「안민가」의 성격을 밝혀 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는 것으로 결론

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삼국유사』의 체제는 일관된 서술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즉 하나의 조목명에는 동일한 주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만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 또한 이러한 서술원리에 의거 기술되었으므로 경덕왕과 충담사, 경덕왕과 표훈대덕과 같은 두 인물에 대한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덕왕의 치리와 긴밀하게 연관된 하나의 서사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경덕왕대가 문화의 절정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전제왕권 강화와 무리한 왕세자 요구로 말미암아 태종무열왕계 전제왕권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한 입론을 증좌하기 위하여 王御國二十四年을 통치기간 二十四年으로 보았으며, <월명사 도술가>조와 연관지어 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조목의 이야기는 무열왕계 전제왕권 붕괴를 계시하기 위한 오악삼산신의 출현 → 충담사의 안민가 창작 → 경덕왕의 무리한 요구와 왕세자 탄생 → 귀족의 대반란을 계시하기 위한 二日並現의 현시 → 월명사의 도술가 가창으로 일괴즉멸 → 천의를 거슬러 해공왕 피살 → 무열왕계 직계혈통의 단절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서사물임을 밝혔다.

2. 위와 같은 관점으로 서사문맥을 이해할 때, 「안민가」 해석의 관건은 '知古如'와 '窺理叱大勝生以支所普物生'의 해독에 달려 있다. 「안민가」는 경덕왕대의 국가혼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어진 노래이다. 그러므로 '知古如'는 '알고다'로 '窺理叱大勝生以支所普物生'은 '구물거리며 사는 物生'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3. 「안민가」는 '백성 편안히 다스리기' 노래이다. 따라서 그 바탕에는 애민적 사고에서 기인된 민본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민가」는 세 개의 의미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제1~4행은 君臣民의 계급적인 관계를 가정적이고 혈연적인 父母兒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상적인 국가관을 의미한다. 제5~8행은 구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아야 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는 정치적 현실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9~10행은 君臣民이 각자의 직분을 다할 때 나라는 태평하게 지켜지리라는 실천적 조화를 유도하는 구절이다. 이로써 볼 때, 「안민가」는 이상적 백성다스리

기와 현실적 백성다스리기, 그리고 이 둘의 실천적 조화를 유도하는 정치적
염원이 담긴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治國理民의 상황에서 좀처럼 보
기 힘든 이러한 정치적 염원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바로 「안민가」가
希願歌라는 의미를 갖는다. 君臣民이 가정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맡은 바 직
분에 충실하면 나라는 지켜지고 아울러 태평성세를 구가할 수 있다는 염원
을 담고 있는 노래가 「안민가」임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資 料

- 一 然, 『三國遺事』
- 金富軾, 『三國史記』

論 著

- 金善琪, 「안민가」, 『現代文學』 148호, 1967.
- 金承璨, 『韓國上古文學論』, 새문社, 1987.
- 金暎泰, 「僧侶郎徒 - 花郎徒와 佛敎와의 關係 -」, 『佛敎學報』 7, 1970.
- 金完鎮,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 金俊榮, 『鄉歌文學』, 螢雪出版社, 1964.
- 劉昌宣, 「安民歌」, 『新東亞』 55호, 新東亞社, 1936.
- 朴魯埠,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 卞鍾鉉, 「安民歌」, 『鄉歌文學研究』 黃浪江敎授 定年退任紀念論叢 I, 一志社,
1993.
- 徐映錫, 「新羅鄉歌의 難解語 研究 - 安民歌 語釋을 中心으로 -」, 『新羅文化』
第二輯,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85.
- 徐在克, 『新羅 鄉歌의 語彙 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75.
- 梁柱東, 『古歌研究』, 博文書館, 1943.

- 楊熙喆, 「安民歌」와 關聯說話의 텍스트 言語 - 解讀과 두 意味化 過程을 中心으로 -, 『西江語文』 第5輯, 西江語文學會, 1986.
-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2.
-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史學報』 6, 1954.
- , 『新羅政治社會史 研究』, 一潮閣, 1974.
- ,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 이도흠, 「안민가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화엄사상」, 『畿甸語文學』 第3輯, 水原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88.
- 李妍淑, 「安民歌 考」, 『韓國文學』 第12輯, 韓國文學會, 1991.
- 李緩衡, 「處容歌 研究」, 『論文集』 第13輯, 忠南大 大學院, 1993.
- , 「“水路夫人”條 歌謠 研究」, 『韓國言語文學』 第32輯, 韓國言語文學會, 1994.
- 李日培, 「安民歌」小考 - 特히 그 參與文學의 性格에 關하여 -, 『國語國文學 研究』 第十五輯, 嶺南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73.
- 李 鐸, 「鄉歌新解讀」, 『한글』 114호, 한글학회, 1956.
- 林基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二友出版社, 1981.
- 鄭烈模, 『향가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5.
- 鄭昌一, 『鄉歌新研究』, 세종출판사, 1987.
- 조동일, 「〈安民歌〉에 나타난 정치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集文堂, 1992.
- 曹平煥, 「讚者婆郎歌·安民歌 小考」, 『北泉沈汝澤先生華甲紀念論叢』, 1982.
- 池憲英, 『鄉歌麗謠新釋』, 正音社, 1947.
- 최 철, 『향가의 文學적 연구』, 새문社, 1983.
- 홍기문, 『향가해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1956.
- 小倉進平, 『鄉歌 및 史讀의 研究』, 東京 近澤商店印刷部, 1929.